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봄을 보면서

최근에 각 기업에서 획기적인 경영 혁신의 기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획기적인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서비스 질 개선, 시간 단축 등 기업 성과의 극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하여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이라는 BR의 정의대로, 잘만 하면 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이 10~20%가 아닌 50~1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몇몇 기업들의 성과에 매료되어 경영층에서는 곧 바로 BR팀을 구성하고, 외부 용역을 주며 단기간에 완성할 것을 벼락같이 지시한다.

여기서 염려되는 것이 우리 국민성 같이 또 한번 끓는 냄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 전략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가 23년 동안 뒤끓었고 이 개념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BR로 바뀌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MIS, SIS, BR, 다운사이징등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개념들은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기 보다는 70년초 전산화 초기단계에서부터 거둬된 전산처리 기술과 정보통신 기



申 勳

아시아나항공 상무이사

술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성공적인 MIS의 구축은 SIS에서 얘기하는 내부 경영혁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무기로 활용되어 졌고 좀 안목 높은 MIS 설계자는 이런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왔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이것을 정보처리 기술에 접목시키는 기술의 발달로 분산처리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각 지점,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단위 업무는 자연스럽게 중소형 기기를 이용하여 분산처리 하게 되었다(다운사이징 개념).

이런 개념이 새로 소개될 때마다 성공적인 사례로 항공사의 시스템의 예로 많이 드는데 항공사에서는 꼭 이런 개념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해 온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신기술이나 신기법을 비교적 먼저 쫓아 변신을 하다보니 그런 개념에 모두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너무 급히 서둘러 새로운 개념만을 쫓아 가다가 끊는 냄비처럼 쉽게 식어 버리게 하지 말고, 차분히 각 기업의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기법을 도입해야 될 것이다.